

‘금사과·금징어’ 막는다… 유통가, 할인·직매입 등 방어전

**이상기후 여파 농수산물값 급등
CA저장·직매입·MOU 등 물량 확보
못난이 양배추, 수산물 등 할인판매
지자체 협업해 프리미엄 상품 개발**

농수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자 유통업계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저장 기술을 활용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물량 확보에 총력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3.6%, 1.0% 상승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사과가 전월 대비 20.4%, 감귤은 14.7% 올랐다. 수산물 중에서는 물오징어가 20.5%, 기타 어류는 6.8% 상승했다.

이상 기후로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주요 어종의 대규모 폐사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통계청의 어류양식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수산물 입식 마릿수는 전년 3억 1250만 마리에서 2억 6700만 마리로 급감했다. 양식 마릿수 역시 4억 7700만 마리에서 3억 3800만 마리로 크게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수온 및 질병 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해로 주요 어종의 대규모 폐사가 발생하면서 입식 및 양식 마릿수에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생산 물량 감소에 농수산물 물가가 오르자, 유통업계는 다양한 판로를 통해 사전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롯데마트는 ‘금사과’ 현상에 대응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선품질혁신센터의 CA저장고를 가동했다. 지난해 수확기 이상 고온으로 저장 사과 품질이 저하되면서 버려지는 물량이 생기자, 저장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해 원물 손실을 줄여 물량 확보에 나선 것이다.

CA 저장기술은 온도와 습도, 공기 중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조절해 농산물의 보관 기간을 늘리는 기술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그린푸드 역시 제주도 농가와 협력해 제주산 저탄소 못난이 양배추 100톤을 매입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올해 수확된 제주 양배추는 기후 악화로 인해 모양이 고르지 않거나 흠집이 있는 ‘못난이’ 양배추 비중이 높지만, 맛과 품질

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를 매입해 작황 악화로 생산량 감소와 값싼 중국산 양배추 수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물량 확보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이랜드김스클럽과 이마트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통해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 확보를 지원받아 해당 원물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이다.

이 외에도 이마트는 영덕군청과 ‘붉은대게 간편식 및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약 7톤가량의 붉은대게 원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프리미엄 상품으로 가공해 판매하고,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영덕 특산물인 대게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농수산물 등 식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뿐만 아니라 외식업계와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식자재 물가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SPC삼립 신제품 관련 이미지. /SPC삼립

SPC삼립 ‘크보빵’ 신제품 역대 최단 기록 사흘만에 100만 봉 돌파

‘크보빵(KBO빵)’이 출시 사흘만에 100만 봉 판매를 넘어섰다고 23일 SPC삼립이 밝혔다. 삼립이 출시한 신제품 중 역대 최단기간이다.

지난 20일 출시된 ‘크보빵’은 KBO 리그와 협업한 제품으로, 프로야구 9개 구단의 특징을 담아 제작됐다. 제품에는 구단대표 선수, 마스코트, 국가대표 선수 등 총 215종의 재부착 스티커가 무작위로 동봉됐다.

제품은 ▲타이거즈 호랑이 초코롤 ▲라이온즈 블루베리 페스츄리 ▲트윈스 쌍둥이 딸기샌드 ▲베어스 곰발바닥 꿀빵 ▲위즈 빅토리 초코바닐라 샌드 ▲랜더스 소금버터 우주선빵 ▲이글스 이글이글 핫툰우바 브레드 ▲다이너스 공룡알 흑임자 컵케익 ▲히어로즈 영웅필승 자색고구마빵 등 총 9종으로 구성됐다.

한편, SPC삼립은 이달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해피포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크보빵 드래프트 페스티벌 이벤트’를 진행한다. /안재선 기자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 K패션 해외판로 본격화

**상해 ‘모드 상하이’ 쇼룸 운영
브랜드별 개별 부스 정체성 강화
통관·물류 등 실무 지원도 병행**

신세계백화점의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가 이달 25일부터 5일간 전 세계 패션·유통 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상해 패션위크’에 참여한다.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는 신세계백화점의 K패션 해외 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신세계하이퍼그라운드는 이번 상해 패션위크의

공식 패션 수주전시회인 ‘모드 상하이’에 쇼룸을 연다.

이번 쇼룸은 성장성이 검증된 국내 브랜드와 함께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수주회를 통해 비건타이거, 스티 밀론, 비엘알, 토이프 엄선된 4개 브랜드 전폭 지원에 나선다.

신세계하이퍼그라운드는 신세계네트워킹을 활용한 사전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일 브랜드의 정체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브랜드 마다 개별 부스를 만들고, 행사 기간 중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초대장을 발송하고 소셜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를 지원한다.

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면 통관, 물류 등 수출 전 과정에서 브랜드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박상민팩토리담당은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폭넓은 해외 진출을 돕고자 이번 상해 쇼룸을 열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K패션을 해외에 알릴 수



지난 2024년 진행한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 밀라노 쇼룸 당시. /신세계백화점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롯데백화점, 동북권 쇼핑 메카로 ‘우뚝’ CJ제일제당, 글로벌 인재 확보 박차

개점 이래 첫 전면 리뉴얼 돌입

롯데백화점이 24일부터 노원점 전면 리뉴얼에 착수한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개점 이후 처음으로 전관을 개편한다. 전체 영업면적의 80%에 달하는 약 1만 평 규모로, 점포 개점 이래 최대 규모다.

점포 외관 고급화, 내부 인테리어 개선, 층별 콘셉트 재정립, 지역 특화관 조성 등을 추진하며 ‘올 뉴(All New) 노원점’을 목표로 리뉴얼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재단장 공간에는 지하 1층, 1~2층, 8층 등 핵심 4개 층이 포함됐다.

우선 지하 1층에는 서울 동북권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식품관’을 선보인다. 식품관의 첫 번째 핵심 공간은 지역

최초 프리미엄 식료품점인 ‘레피세리’로, 미식 경험의 혁신을 목표로 차별화된 콘텐츠,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1층에는 300평 규모의 ‘뷰티 전문관’을 조성한다. 샤넬, 디올 등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서며, 글로벌 인기 니치 향수 브랜드도 입점한다. 2층은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K패션 전문관’으로 탈바꿈한다. 마뎀김 등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들을 유치하고, 2030 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신발, 가방 브랜드들의 특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8층에는 ‘상권 최대 스포츠 메가숍’을 연다.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등 브랜드를 대형 규모로 구성하고, 프리미엄 상품 및 한정판 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인다. /안재선 기자

MIT·컬럼비아 MBA 재학생 봉사 방문

CJ제일제당이 글로벌 인재의 견학·네트워크 프로그램인 ‘글로벌 탐티어 아카데미 파트너십’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CJ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지 문화와 시장 이해도가 높은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과 20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와 컬럼비아대 경영학석사(MBA) 과정 재학생 총 60명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제일제당 본사를 방문했다.

견학 프로그램에는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이 참석해 ‘글로벌 CJ 비전’을 소개했으며, 글로벌

채용 담당자들은 사업 포트폴리오와 주요 브랜드, 제품 등을 안내했다.

행사 중간에는 바삭칩, 김스낵, 맛밤 등 CJ제일제당의 대표 간식을 제공해 ‘K-스낵’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임직원 휴게공간인 커넥트라운지를 비롯해 쿠킹 스튜디오 ‘CJ더키친’, CJ더마켓과 올리브영 매장, 카페테리아 식당 등을 둘러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 외에도 CJ제일제당은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글로벌 인재 확보 및 네트워크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월과 이달 초에도 코넬대, 브라이언트대, 텍사스대 MBA 과정 학생 110명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올 상반기 중 와튼스쿨, 인시아드, 카네기 멜런대 등의 MBA 재학생들도 본사를 찾을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CU 도시락·브런치 15종 ‘넘버원 간편식’ 선택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넘버원 간편식 시리즈’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간편식을 선보인다. 이번 시리즈에는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을 비롯해 샌드위치, 파스타, 안주류 등 총 15종의 제품이 포함됐다.

CU에 따르면, 넘버원 간편식 시리즈의 대표 상품으로 ‘넘버원 김치돼지 찜 도시락’과 ‘간장돼지찜 도시락’이 마련됐다. 기존 편의점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찜 요리 도시락으로, 전용으로 제작한 찜 요리 전용 뚜껑을 덮고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면 촉촉하고 부드러운 고기 식감을 즐길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건강 콘셉트 제품도 출시한다. 대표적으로 키토 김밥을 편의점 간편식으로 구현한 ‘에그바’와 밥양을 줄이고 단백질 강화한 ‘에그 삼각김밥’ 등이 있다.

브런치 메뉴도 만나볼 수 있다.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 ‘크루아상 샌드위치’ 2종을 비롯해, 호주 청정우를 사용한 햄버거 등 제품이 준비됐다.

/안재선 기자